



한기주 첫 국제무대 ‘합격’

‘황금팔’ 한기주(20·KIA)가 성인으론 첫 국제무대 신고식을 완벽하게 치러내며 내년 시즌 대 활약을 예고했다.

한기주는 지난 2일 일본전에서 선발 전병호, 장원삼에 이어 2-3으로 뒤진 5회 등판해 150km대 강속구를 앞세워 2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일본 강타선을 잠재웠다.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판한 한기주는 첫 타자 아라이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뒤 아베와 무라타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2사 1, 2루 실점 위기에 내몰렸으나 7번 이바나를 우익수 플레이로 유도하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실점 위기를 무사히 넘긴 한기주는 6회부터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선두 타자 오무라와 불 가운트 2-2에서 삼진으로 잡아낸 뒤 모리노와 니시오카를 각각 좌익수 뜬 공과 3루수 플레이로 처리, 세 타자를 삼자 범퇴로 셋아웃 시켰다.

일본전 2이닝 무실점 쾌투

호시노 “가장 인상적” 극찬

내년 시즌 대활약 기대

한기주는 7회 선두 타자 가와사키를 좌익수 파울 플레이로 아웃시키고 좌완 류택현(36)에게 마운드를 내줬다.

한기주의 이날 호투는 국제 무대 데뷔 전이라는 점에서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한기주는 지난해 동성고를 졸업한 뒤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10억 원)을 받고 KIA에 입단하며 신인왕 후보 ‘0’ 순위로 지목됐던 특급 투수.

하지만 시즌 초 ‘괴물신인’ 류현진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자신에게 쏠렸던 스포트라이트가 류현진을 비추는 바람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기도 했다.

한기주는 시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아미주어 때의 위력을 되찾아 10승 11패 1세이브(방어율 3.26)를 거뒀지만, ‘선발 투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2007 시즌엔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했다.

마무리로 변신한 한기주는 다행히 2007 시즌동안 다른 특급 마무리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하위 팀에서 25세이브를 올리는 위력투를 뽐냈고, 덕분에 시즌 중반부터 발표된 5차례의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서 단 한 차례도 제외되지 않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엔트리까지 살아남은 한기주는 올림픽 티켓의 운명을 훤 일본전에 등판했고, 일본 타자들은 한기주의 빠른 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경기 뒤 호시노 일본팀 감독은 “한기주의 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극찬했고, 한국팀 주장인 박찬호도 “(한)기주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짚어질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신지애 잔치

대상·다승·상금·최저타

무려 네차례 시상대 올라

상금, 다승에 신인왕까지 차지해 다섯차례나 수상자 호명을 들었다.

신지애는 올해 18차례 대회에 출전해 절반인 9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담아 다른 선수들을 들러리로 삼았다.

신지애는 “프로 무대에 뛰어 들 때 상금왕 3연패를 목표로 내걸었다”면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상금왕 타이틀과 대상을 차지겠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는 해외부문 대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랭킹 4위 김미현(30·KTF)과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금 3위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이 각각 수상했다.

평생 한번 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상은 김하늘(19·코오롱)에게 돌아갔다.

여지예(23·김영주골프)는 시즌 내내 남다른 옷 맵시를 과시해 베스트드레서에 뽑혔고 김순희(41·힐러코리아)는 매너상을 받았다.

신지애는 지난해에는 대상, 최저타수,

3일 오후 6시 막을 올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7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은 내내 ‘신지애’ 이름 석자로 부르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2년째 뛴 신지애 <시즌>은 이날 KB국민은행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봄이다. 지난해에도 압도적인 점수 차로 대상을 받았던 신지애는 1999년과 2000년에 연속 수상한 정밀미(35·기가골프) 이후 7년만에 대상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뿐만 아니라 신지애는 시즌 최저타수 1위(70.02타), 상금 1위(6억7천454만원), 다승 1위(9승) 등 세 차례나 더 시상대에 올라야 했다.

신지애는 지난해에는 대상, 최저타수,

박세리 명예의 전당 ‘트리플 크라운’

LPGA·세계 골프 이어

KLPGA 명예의 전당에



우승 포인트를 모아 100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1996년에 한국여자프로골프에 입문한 박세리는 지난 7월 LPGA 투어

제이미 과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입회에 필요한 100포인트를 꼭 채웠다.

한국여자프로골프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핸드프린트를 등판으로 제작해 영구보존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명예 대사로 임명되는 것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영구출전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LPGA 렉서스컵 대회 주장을 맡은 박세리는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떠나는 일정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 CC

“홀인원 고객에 경품”

호남 최초 양잔디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내장한 고객중 23홀에서 홀인원을 한 고객에게 LG트롬 세탁기 1대(최초 홀인원), LG 디오스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1대(두번째),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1대(세번째), LG PDP 42인치 벽걸이형 텔레비전(네번째)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야마추어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하고 지난 1년동안 내장 고객들에 대한 사은행사로 ‘고객감사 홀인원 이벤트’를 갖기로 했다.

7일부터 31일까지…푸짐한 전자제품 내걸어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는 홀인원을 한 고객에게 LG트롬 세탁기 1대(최초 홀인원), LG 디오스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1대(두번째),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1대(세번째), LG PDP 42인치 벽걸이형 텔레비전(네번째)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준희 함평다이너스티CC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광주일보배 전국야마추어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상으로 최고급 오피러스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했으나 홀인원이 나오지 않아 청가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함평다이너스티CC를 찾아주신 내장객들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윤석민 몸값 1억원 돌파

올보다 22% 오른 1억1천만원

37명 연봉 재계약…11명은 삭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내년도 연봉 재계약 대상자 55명 가운데 우안투수 윤석민(21) 등 37명과 계약(재계약을 67.3%)을 맺었다. 9명이 올랐고, 11명은 깎았다. 동결은 17

명이다.

올해 선발투수로 활약한 윤석민은 지난 해 9천만원에서 22.2% 인상된 1억1천만원에 사인해 프로 4년차에 연봉 1억 원을 드물고했다.

사이드암 신용운도 연봉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뛰었고, 투수 손영민과 문현정은 2천만원에서 각각 2천800만 원과 2천6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연봉 2천만원인 오준형은 500만원, 양현종 400만원, 이범석 300만원, 박정규는 200만원이 더 보태졌다.



3일 오후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 예선 한국 대 필리핀의 경기 5회말 무사 2루에서 주자 이대형이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제인 박 월리파이스쿨 1위

내년 LPGA 출전권 획득

제이미교포 제인 박(20)이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LPGA인터내셔널 골프장 레전드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파이스쿨 5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343타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제인 박은 상위 17명에게 주는 2008년 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따냈다. 14언더파 346타로 2위를 차지한 김수아(26)와 박희영(20·이수건설)도 10언더파 350타를 쳐 3위에 오르면서 전경기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KPGA 신인왕 김경태

일본시즌 출전권 확보

양영아(29)도 6언더파 354타를 쳐 공동 7위에 오르는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 4명이 전경기 출전권을 받았다.

한편 올해 한국프로골프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한 김경태(21·신현은행)도 3일 일본 이바리키현 센트럴골프장(파72)에서 끝난 JGTO 웰리파이스쿨 최종 리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6언더파 합계 9언더파 423타로 37위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2008년 시즌 출전권을 따냈다. 규정에 따라 김경태는 약 24~26개 대회가 치러질 내년 JGTO 대회 가운데 14~16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약체 비에 콜드 승…2승1패

베이징올림픽 야구 흐름 예상

한국 야구대표팀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전을 겨우 열린 제24회 아시아야구 선수권대회를 2승1패로 마감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계속된 예선 3차전에서 약체 필리핀을 맞아 고영민이 투런 아치를 그리고 장단 16안타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는 등 13-1,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선발 투수들은 5이닝을 1점(비자책)으로 끌어 막았고 류택현과 권혁이 각각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골프·EEDED 회원권거래 전문기법	
록펠러 회원권	
광 주 3,500	클럽 900 5,200
남 광 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한 평 7,400
한국 AIA는 저마다 티켓과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의 (062)351-0095	